

1. 체육발달 과정

순천의 체육발달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세계 및 우리나라 체육발달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사의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은 르네상스 이후의 일인데 그때의 체육은 일반 사상가들에 의하여 고대 그리스 체육의 의의가 재인식되는 단계였다. 근대체육은 이보다 200년 정도 이후에 시작되었다. 즉, 체육사상의 부활이 체육실천의 부흥보다 선행되어 있었던 것이다. 19세기에 와서는 근대국가들이 학교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학교체육을 보급시켰으며, 20세기에 들어서 영국을 중심으로 근대 스포츠가 전 세계에 보급되었다.

1920년경 미국은 유럽대륙에서 들어온 체조와 영국의 스포츠를 잘 조화시킨 소위 미국적 체육과 스포츠가 성행하였고, 1917년 러시아혁명 후에 시작된 소련의 체육과 스포츠는 생산과 방위의 준비를 갖추는 데 목적을 둔 소위 국방체육을 확장하기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건강과 레크리에이션의 문제가 체육의 새로운 영역으로 개발되었고, 그 내용도 더욱 광범위하게 발전되었다. 또 1960년대에는 동서 냉전시대에 돌입하면서 스포츠가 국력을 과시하는 척도로 사용되는가 하면, 스포츠를 통한 국가간의 친선을 도모하려는 것보다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하여 그 능력을 평가하는 스포츠의 과학화를 위한 학문적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우리나라의 근대체육사의 태동은 18세기에 들어와서 조선왕조의 구조적인 모순을 타개하고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지향하는 실학파가 대두되면서부터이다. 1876년 부산의 개항과 더불어 여러 나라에서 유입되는 새로운 문물과 외세의 도전에 대처해야 할 새로운 지식의 필요성은 근대학교의 설립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1878년에는 개항장인 동래에 왜구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예교육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창설되었다. 한편 개화사상의 유입에 따른 선교활동도 활발히 진행되어 곳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점차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다. 근대체육은 신문물을 받아들인 개화된 지식인들의 학교교육과 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되기 시작했다.

순천에는 1913년 고라복 선교사가 기독교 신앙포교를 목적으로 사립 은성학교(매산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종교탄압으로 성경과목을 정과수업 과목으로 강의하기를 불허했기 때문에 개교 3년 만인 1916년 6월 자진 폐교하였다. 이로부터 5년 후인 1921년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사립 매산학교가 다시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지만 1937년 9월 개교한 지 24년 만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폐교당했다. 폐교되기 이전인 1922년 상해 유학생이었던 김원복이 평양 무오축구단에서 선수생활을 마치고 매산학교로 부임하였다. 그는 1911년 개교한 순천보통학교(현 순천남초등학교)에서 미력하게 행해지고 있던 당시의 학교체육을 근대체육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공적을 남겼다.

그는 이때부터 목정밭에서 근대 스포츠인 농구·축구 등을 지도하기 시작했고, 차츰 매산학교 운동장이 만들어지면서 그곳에서 전파시키기 시작하였다. 특히 축구를 열심히 지도하여 후에 순천을 대표하는 1931팀·철도국팀으로 이어지는 튼튼한 밑바탕을 형성하여 순천 체육의 획을 그었으며, 그가 근무하였던 매산학교는 순천 축구의 모체가 되었다. 또한 이 지역 출신으로 동경대학에서 야구선수 경력을 가진 일본 유학생 정문기가 방학을 이용하여 야구·정구·축구·육상 등 근대 스포츠를 소개하였으며 순천체육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때의 체육활동 주종목은 육상·축구·정구·야구 등이었는데, 야구는 주로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행해진 반면 육상·축구 등은 주로 한국인들이 했다. 이당시 우리 젊은이들은 스포츠를 통하여 민

족의 단결을 도모하였고 암울했던 일제치하의 울분을 씻었다.

1935년에는 순천농림학교가 개교하여 축구·육상 등이 활성화되었으며, 1938년에는 순천공업중학교가 개교하여 근대 스포츠는 더욱 활발히 확산되었다. 이때 체육교사는 일본 체육전문학교를 졸업한 일본인 마쯔무라(松浦文彌)였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당시 순천에서는 민속전래 경기인 씨름·국궁과 더불어 근대 스포츠 종목인 축구·정구·유도·기계체조·농구·배구 등이 소개되었다. 그러던 가운데 1937년 매산학교가 신사참배 거부사건으로 폐교를 당하자 학생 및 교직원은 순천보통학교에 병합되었다. 이는 곧 근대 스포츠를 초등학교생에게까지 전파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37년 일본이 만주침략의 야욕으로 중일전쟁을 일으키자 학교체육은 전시체제하로 돌입하여, 일체의 스포츠 활동을 불허하고 군사 위주의 제식훈련을 장려하였다. 아울러 각종 민족정신 말살정책 때문에 학교체육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그후 해방이 되자 1947년 순천사범학교가 개교하여 초대 체육교사로 성희준이 부임하여 축구·배구·육상·권투 등을 가르쳤다. 특히 이때의 순천사범학교의 배구는 그 명성이 대단하였다. 그후 박만호가 부임하여 체육을 지도하였다. 당시 순천사범학교의 배구팀은 김덕수가 조직한 철도국팀과 함께 순천 배구의 양대 산맥을 이루며 발전하였다. 광주의대팀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순천에 원정왔는데 순천사범팀 그리고 철도국팀과 원정경기를 벌였으며, 법원 광장(현 삼성생명 자리)과 철도 운동장에서 주로 경기를 가졌다. 경기방법은 9인제 3세트 경기였으나 빅게임일 때는 5세트로 하였다. 경기소식은 순식간에 모든 시민에게 알려져 많은 시민들이 열렬한 성원을 보냈다. 또한 이 시대의 순천중·순농·순천사범·매산학교 간의 축구 대항전은 순천의 명물로 하객들뿐만 아니라 졸업생과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1964년에는 김병옥이 순천고등학교에 체육교사로 부임하면서 배드민턴부를 창단하여 2년 만에 전남 고등부를 석권하고, 제46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남대표로 출전하여 우승하였다. 이때부터 순천고의 배드민턴은 1973년 제54회 전국체육대회까지 수많은 메달을 획득하며 그 역량을 한껏 과시하였다. 또한 1973년 양궁부를 창단하여 지도한 지 7개월 만에 전남대회를 석권하여 전국대회에 전남대표로 출전하였다. 이때부터 순천고의 양궁은 이기식·한정안·김영운 등 국가대표 선수들을 배출하여 국위를 선양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후 순천공고의 사이클·유도, 금당고의 권투·배드민턴, 순천상고의 야구·씨름, 순천대학의 정구·배드민턴·육상·권투 등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하고 있다.